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2월 내구재 주문, 3개월 만에 처음 증가

[미국 금융]
- WSJ: 금리 하락 예상 불구 국채 수익률은 왜 오를까?
- CNBC: 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
- Bloomberg: 비자, 마스터카드사, 소매업체들과 3백억불 수수료 합의

[주택]
- Bloomberg: 미 주택 가격, 도시 전반에 걸쳐 상승세

[미중 경제]
- WSJ: 중국,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WTO에 미국 제소
- Bloomberg: 중국 제조 산업이 미국의 인플레 위험을 키운다
- WSJ: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, “지정학적 갈등 불구, 미국 진출 확대한다”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: Amazon, 뉴욕과 LA로 당일 의약품 배달 확대
- Bloomberg: 맥도날드, 미국서 크리스피 도넛 판매 개시
- CNN Business: 트레이더 조,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나나 가격 인상

[보고서]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Durable Goods Orders Rise for First Time in Three Months
미 2월 내구재 주문, 3개월 만에 처음 증가

- 2월 들어 내구재 신규 주문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. 이는 기업들이 미 경제의 방향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.

- 관련 주문이 1월에는 6.9% 감소로 하향 조정됐으나 1월들어 1.4%로 상승했다고 오늘 화요일 미연방 상무부는 밝혔다. 당초 블룸버그의 예상치는 1% 상승이었다.

- 운송 장비를 제외한 주문은 0.5% 상승했는데 그 전 2개월은 하락했었다.

-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측정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액 규모는 2월에 0.7% 늘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Why Treasury Yields Are Rising Despite Rate-Cut Expectations
금리 하락 예상 불구 국채 수익률은 왜 오를까?

- 연준은 금리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. 그런데 모기지율과 기타 차입 비용을 결정하는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. 어제 월요일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.252%로 작년 말의 3.865%보다 상승했다.
- 이에 따라 30년 고정 모기지율 역시 올랐고, 회사채 시장에서의 차입 비용도 상승했다.
- 왜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채 상승률이 오를까? 전문가에 따르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겠지만, 올해 그 시기가 늦어질 것이고 인하 폭도 작으리라는 것. 이에 따라 10년물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.

WSJ 기사

CNBC: Gold firms on weaker dollar, focus on U.S. inflation data
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

- 투자자들은 연준의 올해 첫 금리 하락의 타이밍을 시사해 줄 이번 주 인플레 데이터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, 달러 약세에 힘입어 금값은 오늘 화요일 상승했다.
- 현물 금은 온스당 1.1% 상승한 2천1백95달러 49센트를 기록했다. 금 선물은 0.9% 오른 2천2백18달러 70센트를 기록했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Visa, Mastercard Reach $30 Billion Swipe-Fee Deal With Merchants
비자, 마스터카드, 소매업체들과 3백억불 수수료 합의

-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들에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에 상한선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. 이에 따라 소매 가맹점들은 5년간 적어도 3백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. 가맹점들은 지난 20년 동안 반독점법과 관련해 이 이슈와 싸워왔다.
-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은 4.5%일 가능성이 높고, 인플레가 하락할 경우 3.5%까지 떨어질 수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주택]

Bloomberg: US Home-Price Growth Picks Up With 'Healthy Gains' Across Cities
미 주택 가격, 도시 전반에 걸쳐 상승세

- 미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. 지난 30년간 주택판매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.
- S&P CoreLogic Case-Shiller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가격은 전년도 동월 대비 6% 상승했다. 12월이 연간 상승률 5.6%보다 높았다.
- 최근에 주택 재고는 늘고 있지만 매물로 나온 주택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, 이 같은 타이트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.
- 2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은 1월에 연간 6.6% 상승해 1월의 6.2%보다 높았다. 특히 샌디에고는 11.2%, 로스엔젤레스는 8.6%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[미중 경제]

WSJ: China Files WTO Complaint Against U.S. Over Electric-Vehicle Subsidies
중국,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WTO에 미국 제소

- 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하여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. 해당 법안이 차별적이며,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는 주장.
- 중국 상무부는 화요일 웹사이트를 통해, 중국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.
-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기후 및 환경 보호라는 명목 아래 WTO 규칙을 위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한다고 지적했다. 상무부는 "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"며 WTO 규칙 내에서만 산업 보조금을 시행할 수 있는 WTO 회원국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Bloomberg: China Manufacturing Drive Risks Higher US Inflation, NY Fed Says
중국 제조 산업이 미국의 인플레 위험을 키운다

-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, 부동산 침체 속에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경제력을 보강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"의미 있는 상승 압력"을 가하고 금융완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- 중국 당국이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,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공장으로의 신용 흐름이 급격히 빨라졌다.

- 뉴욕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주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2년간의 수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. 해당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, 중국 제조업체의 추가 수요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여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뉴욕 연준 연구팀의 설명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China's Battery Champion Says Geopolitical Tensions Won't Derail U.S. Expansion
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, "지정학적 갈등 불구, 미국 진출 확대한다"

- 중국의 배터리 제조 기업 CATL의 회장이 미래 기술 통제력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긴장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. 해당 기업이 미국에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.

- CATL의 회장 Robin Zeng은 "CATL은 새로운 자사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대신, 테슬라를 비롯한 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미국에서의 배터리 기술 사용을 허가받을 것"이라고 WSJ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.

- Zeng은 "지정학은 매우 일시적인 문제다. 각 행정부는 4~5년만 지속되지만, 비즈니스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"고 설명했다. 또한, 전 세계 정부가 기후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CATL의 기술력이 더 큰 기술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Amazon Expands Same-Day Pharmacy Delivery to New York, Los Angeles
Amazon, 뉴욕과 LA로 당일 의약품 배달 확대

- 아마존이 당일 약 배송 가능 지역으로 뉴욕과 LA를 추가한다. 건강 및 의약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.

- 아마존은 두 대도시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보편적 질환에 대한 약을 당일 발송하겠다고 발표했다. 해당 기업은 연말까지 12개 이상의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.

- 업계 분석가들은 온라인 약국 이용률이 다른 소매업보다 뒤처진 건 사실이지만, 점점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될 것이라 설명했다.

- EMarke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90%가 오프라인 약국에서 처방받고 있지만, 약 30%는 온라인 약국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McDonald's to Sell Krispy Kreme Doughnuts Across the US
맥도날드, 미국서 크리스피 도넛 판매 개시

-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가 2021년 7월이 후 최대치로 상승했다. 맥도날드가 미국 전 매장에서 크리스피 크림의 체인인 크리스피 도넛을 판매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.
-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는 화요일 뉴욕 거래소에서 27%까지 급등했다.
- 맥도날드 최고 마케팅 책임자 Tariq Hassan는 "크리스피 메뉴를 도입하여, 맥도날드는 아침 식사 및 간식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"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CNN Business: Trader Joe's just increased the price of a banana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20 years
트레이더 조,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나나 가격 인상

- 트레이더 조가 바나나가격을 개당 23센트로 인상했다. 인상율은 20%.
- 회사 대변인은 "우리는 원가가 바뀔 때만 가격을 조정한다. 20여년 동안 개당 19센트를 유지했는데,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"이라고 말했다.
- 저가 상품으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코스트코는 핫도그를 1달러 50센트로 유지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골드만 "S&P500 6,000 갈 수도"…씨티 "유럽증시 6% 추가 상승"

금리인하 기대·AI 낙관론에 월가, S&P500 연말 전망치 잇따라 상향

골드만삭스는 대형기술주들에 힘입어 올해 연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500 지수가 6,000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.

24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S&P500지수의 전망치 5,200을 유지하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(MS), 엔비디아, 메타플랫폼 등 대형기술주(Megacap)의 오름세로 15% 정도 추가 상승도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.

데이비드 코스틴이 이끄는 골드만삭스 전략팀은 메모에서 기준 금리의 향후 경로와 경제성장 전망이 충분히 반영돼 있어 현재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Unsubscribe office@kocham.org

Constant Contact Data Notice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